

NO: #0002

DATE: 2022.06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Monthly

# 나눔과행복소식

##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아닌 목표를 완수하는 것

중요한 건 짜여진 대본, 그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를 각부서의 협업을 통해  
골든타임내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계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면서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일에서는 계획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하니까요.



## 재활치료팀, 합동응급훈련 실시

지난 6/27(월) 오후에 100여명의 치료사 선생님들이  
진료부, 간호팀, 원무팀의 협조하에 합동응급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응급훈련을 통해 치료실내의 응급상황을  
정의해보았고, 응급상황시 각팀, 팀원의 업무분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였고, 심정지 발생 시 직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합센터 정기교육 (06.0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4시30분에는 통합센터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3층 유방갑상선센터, 건강증진센터, 6층 회의실에서 3가지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간호팀 신규간호사교육 (06.03)



6층 회의실에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이 첫 직장인 사회 초년생 선생님도 계시고, 어느정도 직장생활을 하셨다가 이직해서 오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서로가 낯선 환경이지만 입사시기가 비슷하다는 공통점 하나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경희 부팀장님과 박선영 팀장님과 함께 전체적인 병원시설과 운영 그리고 간호업무까지 알게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회의의 진행 (06.10)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실무분과 회의를 위해서 해운대구청,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건강증진과, 해운대구보건소,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해운대백병원 의료사회사업실  
그리고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며 변화하는  
우리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몰입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의 효율적  
활용체계 마련에 작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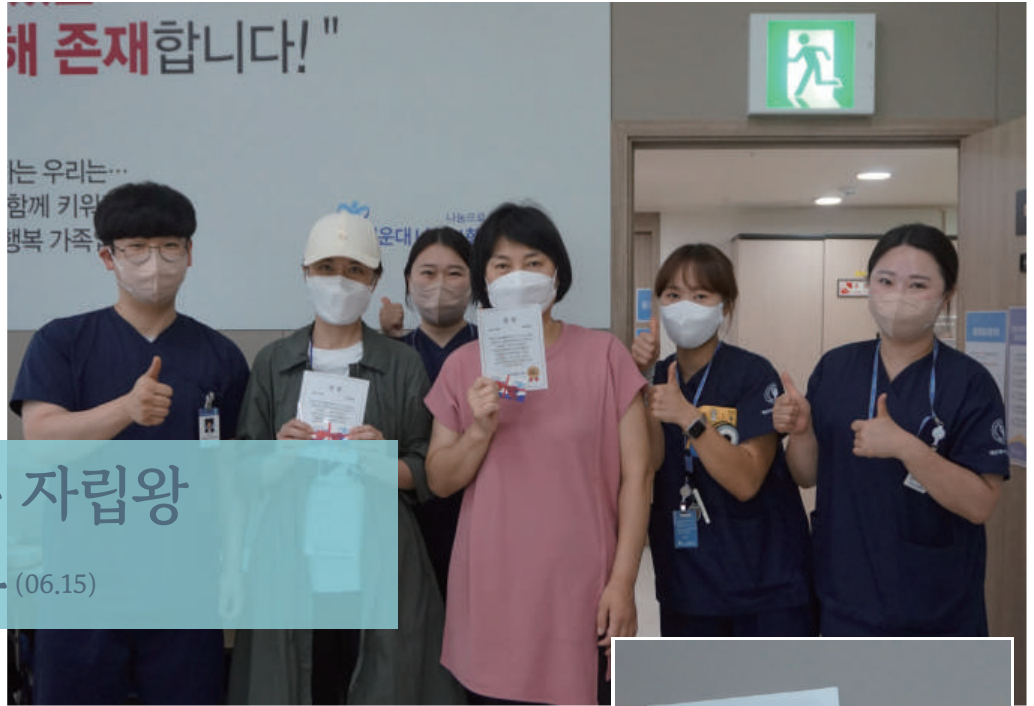
장애인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 부산의료원 MOU 체결 (06.22)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료원과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에서는 5월 한달간 센터를 이용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립왕을 선정하였고, 6월에 일상재활센터 참여자들이 모인곳에서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달의 우수 자립왕 수상자 발표** (0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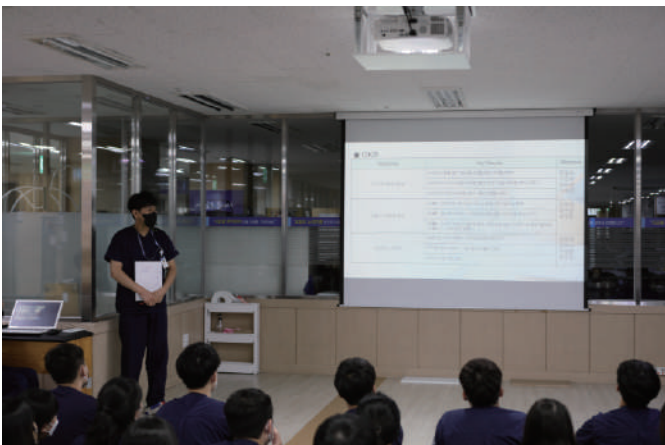


5층 생활재활센터 내에서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및 초기 대응 방법 등을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였고, 9층 야외테라스에서 소화기·소화전 작동법 숙지 및 실습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운대소방서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소방훈련** (06.29)



# 함께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는. 워크숍



2022 사업계획 및 조직역량강화  
재활1팀 워크숍 (06.03)

2022 화합과 친근의  
간호팀 워크숍 (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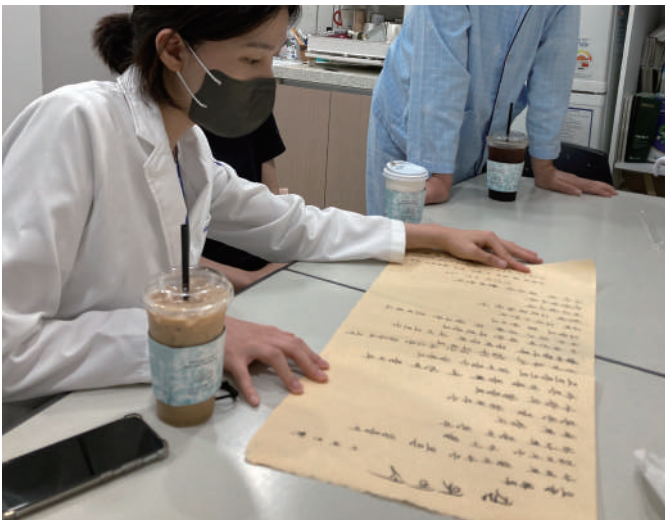
# 일상적인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회사업팀과 함께하는 6월의 이벤트



이·미용 프로그램 (06.21 / 06.24)



참여자들의 소소한 일상 (06.28)



퇴원하는 참여자의 선물 (0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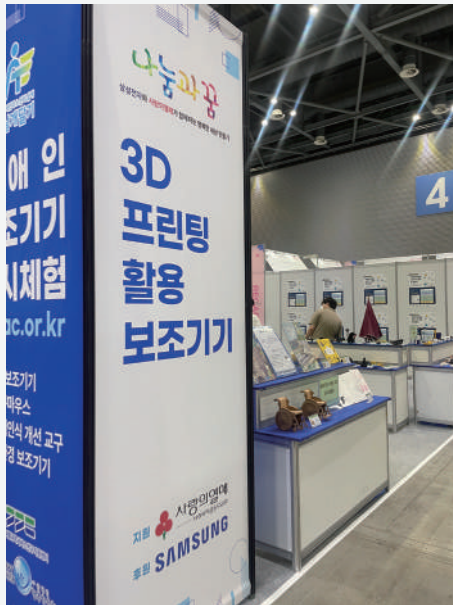


이벤트 프로그램  
'모기퇴치제 만들기' (06.30)

# 재활·복지박람회 참석 (06.24~25)

## KINTEX 전시장

국내 재활과 복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이번  
박람회에 많은 정책과 최신  
동향 등 좋은 정보와  
아이디어 교류를 위해 1박2일  
과정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당신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시간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었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기록이죠. 그래서 적(는)자생존,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우리 병원이 함께 걸어온 10년을 지나 함께 만들어갈 10년의 첫해를 맞이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기록으로 채워나가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소소한 일상을 담은 '월간소식 5월호'가 공유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에는 좀 굵직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매년 개원기념일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핵심가치상**  
그리고 병원의 의미있는 변화에 기여한 팀(또는 팀원)에 대한 상(업적) 등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 명칭변화, 팀제도입, 회의문화 등)

저장 장소는 병원 네트워크 「나스」→「전체공유」→「명예의 전당(가칭)」을 마련해서 매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명예의 전당(가칭)」의 새로운, 적절한 명칭 공모입니다.

공모내용	핵심가치상 및 의미있는 변화에 기여한 팀(팀원)을 상징하는 명칭
공모방법	구글 설문조사
공모일정	2022년 6월 2일(목) ~ 6월 17일(금)
공모발표	2022년 06월 30일(목)
시 상	2022년 11월 개원기념일 시상
시상내용	상금(또는 상품권) 1등: 20만원 / 2등: 10만원 / 3등: 5만원

아이디어는 —— '새로운 것'을 '발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되는 것'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 명칭 공모전 (06.02~17)

1위 - [나이테] '나'행스토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어주고 '이'끌어가는 크고 작은 영웅들이 지켜주는 나행의 '테'두리(울타리)나무의 나이만큼 들어가는 나이테처럼 우리 병원의 행복 가득한 이야기도 계속 쌓여가길 바라는 마음

2위 - [공훈의 기억] 우리 나눔과 행복병원을 위해 두드러지게 공로를 세운 팀원을 위해 기억하고자 합니다. 기억 속에 기록되어 추억 할 수 있도록...

3위 - [기억공간] 매년 새로운 기억이 기록되겠지만, 지난 간 기억도 잊히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수상하는 팀이나 팀원들 역시 특별한 무엇이 아닌 우리 옆에서 자신의 말은 소임을 다한 그저 평범한 동료임을 생각했을 때 거창하지 않은 명칭으로 누구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길 바랍니다.

### Q1

다음 10개 중 [명예의 전당(가칭)]의 새로운, 적절한 명칭에 대한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공훈의 기억] ...	14.9%	2위 - 간호팀(7W) 양주연 선생님
[글로리] 명예...	6.3%	
[기억공간] 매...	12.6%	3위 - 재활치료1팀 노현욱 선생님
[나이테] '나'행...	29.3%	1위 - 유감센터 권혜정 선생님
[나행기록유산] ...	6.3%	
[보석함] 핵심...	3.2%	
[소소찬란] 우...	6.3%	
[일취월장/日...	4.1%	
[좋은 기억 박...	6.8%	
[SNH Heritag...	10.4%	



For. 서인석 코치님

재활코치팀과

함께 하는 **휠체어스쿨**

-step.1 바르게 밀기, 회전법



기획 : 재활코치팀

출연 : 재활코치팀 서인석 선생님

촬영 : 박현기 선생님

제작 : 박현기 선생님

## 재활코치팀과 함께하는 휠체어스쿨

### step.1 - 바르게 밀기, 회전법

올바른 휠체어 조작의 필요성

- 휠체어 스킬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
- 여러가지 힐링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 선택
- 자세변형, 어깨손상, 낙상 등 이차적인 부상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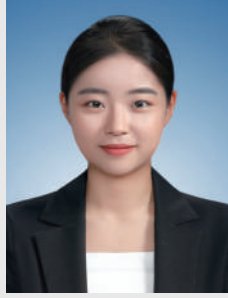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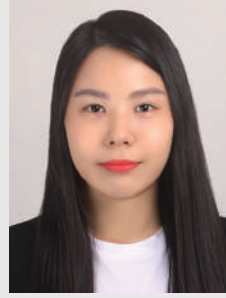
# 우리는 가족입니다. 6월의 신규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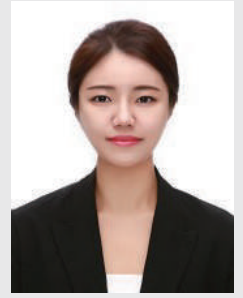
내분비내과 박찬호 진료과장



유·갑센터 김민경 간호사



간호팀(8W) 이승연 간호사



심사팀 문은하 선생님

##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 전달식



영양팀  
구경애 팀장님 퇴사

참여분들에 대한 올바른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직원들에게 균형잡힌 식단 계획과 급식관리는 차별화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였고, 영양의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양팀이 치료의 한 파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소화기내시경센터  
구인화 팀장님 퇴사

정직한 최선으로 외래환자를 응대하고 자발적 긍정으로 직원들과 소통함은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고, 순수한 열정과 열린 사고는 한결같이 변함없었습니다.



# 홍보팀장의 '브런치' 두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 아버지, 오늘은 보드게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저녁이다.

직장과 집과의 거리는 약 30km다. 왕복 60km의 거리다. 나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이 곳은 세 번째 직장이다. 그렇게 출퇴근한지가 10년이 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칼퇴근이다. 스마트폰으로 퇴근 QR코드를 찍는다. 출퇴근용 경차에 시동을 켜다. 코로나로 인해 2년 가까이 회식과 모임이 없어졌다. 별다른 야근이 없으면 곧장 집으로 간다. 퇴근길은 교통 혼잡을 피한 새벽 출근길과는 다르다. 집으로 가는길은 언제나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수십 번 밟은 후에야 집에 도착한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다. '띠띠띠띠 띵띠띠띠' '찰각 띵띠띠' 문을 연다. 그러면 어김없이 특정시간의 라디오광고처럼 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보드게임 할 수 있어요?”

슈필라움(Spielraum, 주체적 공간), 독일어 '놀이(Spiel)'와 '공간(Raum)'이 합쳐진 '슈필라움'은 우리말로 '여유 공간'이라 번역할 수 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실제 '놀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뜻한다.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_\_김정운 《바닷가 작업실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21세기북스)

놀이와 공간을 합친 이 단어는 저자 김정운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단어인 듯 보인다. 우리말로 여유공간을 뜻하는데, 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싶다. 워킹맘은 더 할 것이다. 하지만 육아와 함께하는 이 시대 엄마, 아빠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어른들은 그러하지 못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2막의 커튼이 열리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쉽지 않은 학교생활과 방과 후, 학원 등으로 돌고 돌아 집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잠들기 전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해야만 잠들 수 있다. 그 사이 아빠 엄마에게 칭찬과 꾸지람을 번갈아가면서 듣고는 말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각자의 낮 시간과 같이하는 저녁시간의 온도가 비슷하다. 비슷한 온도라면 그 온도를 끌어 올리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몫. 아빠의 지분이 50%이니 이를 중 하루는 아빠 몫이다. 나만의 슈필라움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의 슈필라움을 위해서 말이다.

보통인지 특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집은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특히 주중에는 TV를 켜지 않는다. 주말에만 아이들이 유튜브를 TV로 본다. 아이에게 TV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TV를 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다.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폰 하나면 TV의 갈증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와 아내가 TV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이기도 하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는 물론, 재밌다는 예능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 물론 그런 궁금증은 가끔 스마트폰 올라오는 썸네일을 통해서 접하기는 한다.

그러한 이유로 집에는 다양한 보드게임이 있다. TV는 안보고 저녁시간은 남으니 같이 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보드게임이다. 아이들이 취학 전부터 틈나면 보드게임을 해줬고, 지금은 일요일에 자기들 둘이서도 할 정도이니

고맙고 감사하다.(제발 그렇게 둘이 하면 좋으려만) 아이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감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다. 우리 집 두 녀석은 학원도 태권도 빼고는 다니지도 않는데 말이다. (꿈이 화가인 작은 아들이 얼마 전부터 미술학원을 다녀서 학원 1개 더 추가이긴 하지만) 다른 또래에 비하면 분명 학습활동과 관련된 학원을 안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늘 부족하다. 이걸 이 시대 초등학생들의 숙명인가보다. 그 숙명에 아빠도 동참해야하는가.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다 하면 아빠가 보드게임을 해준다고 약속했었다. 우리 모두의 슈필라움을 위해서 말이다.

다시 퇴근 후 도어락을 열었을때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 오늘은 고쳐 쓰기랑, 방과 후 숙제랑, 일기랑, 책임기만 하면 끝나요! 오늘 보드게임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구먼!! 일단, 저녁 먹고 아빠 할 일 다할 때까지 너희 할 일 다 하면 보드게임 한판~”

아이들과 어른들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분명 다르다. 가끔 어느 속도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느긋한 마음이 부럽기는 하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이 흐르고, 양치와 가글까지 끝이 나고서야 보드게임을 펼친다. 큰아이가 원하는 보드게임이랑 작은아이가 원하는 보드게임이 같으면 셋이서 한판한다. 만약 다르면 난 각각 따로 한 번씩 해주어야하는 불상사가 초래한다. 다행히 오늘은 '인생역전'이라는 게임을 셋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저녁이다. 웃고 떠들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고, 자녀에 대한 밥상머리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부모가 자녀의 하루 일과를 들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다 보면 인성교육이 절로 된다.

\_\_고재학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예담)

유대인 아빠들은 직장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서로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독서를 하고, 그 모습을 따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동참한다고 한다. 나 역시 이런 습관을 오래전부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아내 역시 다른 것은 몰라도 저녁만공은 아빠와 함께 넷이서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10년 넘게 지키고 있다. 어차피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해야할 시기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10년 넘게(야근, 회식 빼고) 아이와 함께 아빠의 저녁을 지켜주는 아내덕분에 우리만의 밥상머리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뤄졌는지 모른다. 가끔은 먼저 먹어줘도 괜찮은데 말이다.^^

내가 집에서 저녁에 반주로 술이라도 먹는 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와~ 아버지 술 드셨다. 오늘 무조건 보드게임이다!! 야호~”

아이들이 커갈수록 직감한다.

슬프지만 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주사위를 굴린다. (무야호~)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

발행일 2022년 06월 30일

편집인 홍보기획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http://www.snh.or.kr>